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인식 제고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김권래·박규업·김학원·임종국 군수 표창

고성군 장애인연합회(회장 최석찬)가 주관한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사회 복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식전 축하공연에서는 천진 어린이집 원아 율동 및 노인복지회관 하은실버예술단의 라인 댄

스를 비롯해 사물놀이의 장구 공연이 진행됐다.

극단 굴렁쇠 김귀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인권헌장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전달,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3부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장기자랑, 푸짐한 경품행사 등 다양하고 알찬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선도하는 아이코리아 고성군지회에서는 중식을 지원했다.

다음은 이날 장애인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로 표창 및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고성군수 표창 △김권래 강

원도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박규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김학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임종국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고성군의회 의장 표창 △홍주성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허진구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김현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고성군장애인연합회장 감사패 △차주호 수성건설 ◆고성군장애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7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인연합회장 공로패 △원사 김장배 22보병사단. ◆고성군장애인연합회 장학금 (각 10만원) △박준수 천진초등학교 6년 △김경연 간성초등학교 6년 △하윤희 거성

초등학교 4년 △김성진 거진종합고등학교 2년 △이동규 고성중학교 2년 △전광민 동광중학교 1년 △손지현 거진종합고등학교 2년.

박승근 기자

제26회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성료

제26회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회장 정찬균)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가족과 내외빈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축구와 족구, 단체줄넘기, 노래자랑 등을 즐기며 동문간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내외빈 명단이다.(순서는 주최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름)

황종국 고성군수, 송훈석 국회의원, 한봉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의원, 문명호 고성군의회의장, 함명준 고성군의회부회장, 김진 고성군의회의원, 고선기 고성군의회의원, 함형완 고성군의회의원, 박효동 강원도의회의원, 김영문 거진중고 총동문회회장, 정달수 고성중고 총동문회회장, 지승연 재경고성군민회장, 최승명 재



제26회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모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경고성군민회 사무총장, 최학철 금강농협조합장, 김명환 토성농협조합장,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 이진명 새마을고성군지회장, 김완식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 박정훈 JCI KOREA 고성군 회장, 손영문 죽왕수산업협동조합장, 박상기 농협중앙회 고성지부장, 안한수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장, 남병목 아야진초등학교 교장, 박종철 재경천진초고 총동문회회장, 김정기 천진초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주일 재경 아야진초고 총동창회장, 김종완 아야진초고 총동문회장, 김석기 동광중·산업과학고 교장, 이일균 재경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장, 정창균 동광중·산업과학고 총동문회장.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과 일터 만들기' 특강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정신적 수양을 위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이미지 컨설팅 대표 홍정화씨를 강사로 초빙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과 일터 만들기'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강의 후에는 명품 속초소방서 창조를 위한 미래비전 T/F팀 연구과제물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원광연 기자



육군 제 22보병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성지역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꿈을 이뤄주는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을 실시해 학생들의 호국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거성·명파·간성 등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열고,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의 안보의식이 국가의 흥망성쇠로 이어지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비춰보는 스토리텔

22사단 안보교육

일선부대 지휘관... 초중고 대상



22사단 정비대대장 위승찬 중령이 아야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링(Story-telling)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안보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슈퍼스타 K 우승자 허각을 통해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성취할 수 있음을 느꼈고, 불안한 내정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의 소년을 보면서는 안보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들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이 직접 교육하니 학생들에게 현실감 있는 교육과 함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22사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1개 학교가 신청했으나, 올해는 23개 학교가 신청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다"며 "나라사랑 및 안보의식 증진을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